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경선 컷오프’ 송하진 도지사 지지자들 “정치적 살인 멈춰라”

“전북 정치문화 퇴행시키는 폭거”

“컷오프 배후에 거물급 정치인 연루설 번지는 중
밀실 공천 자행세력·사태 진상 철저히 밝혀야”
송 지사, 지난 16일 민주 공관위에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지자들이 송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하진 지사 지지자들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불공정한 송하진 지사 경선 배제를 철회하고 저열한 정치적 살인 행위를 자행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이날 “우리는 민주당 공관위 결정의 부당함과 불공정 심사과정을 낱알히 밝히고 송 지사의 경선 참여 보장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서 “특정 정치세력의 협잡에 의한 송 지사 컷오프 사태는 명백한 정치적 살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외길을 걸어온 유능하고 유력한 정치인에 대한 저열한 정치적 살인을 넘어 불의에 항거해 온 전북의 정치문화를 퇴행시키는 폭거이자 정의와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는 민주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지지자들은 “송 지사는 정량적 지표에서 단점도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국민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며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송 지사는 컷오프가 아닌 1위 후보로 선출돼야 마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관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송 지사에 대한 교체지수가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이는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성재 전 전북도 비서실장은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해야 할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 이례적으로 공관위원으로 참여해 송 지사의 컷오프를 강하게 주장해 반영시켰다는 언론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의혹에 대해 도민들에 설명하는 것이 도민과 현직 도지사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송 지사 컷오프 배후에 거물급 정치인과 청신돼야 할 구태연한 계보정치가 도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실특력 있게 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심사가 아닌 밀실 공천을 자행한 세력과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4일 송 지사와 유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김관영 전 의원과 김운덕·안호영 의원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올렸다.

전북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이에 송 지사는 지난 16일 저녁 마감 시간을 약 한 시간 가량 앞두고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공관위가 직무수행평가 중 상위 적합도 평가 미집, 당 기여도 1급 포상을 받은 후보를 배제한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의 재심 수용 여부는 48시간 이내에 결정된다. /유호상 기자



고성재 전 전북도 비서실장과 송하진 도지사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무너진 시스템 공천을 바로잡고 송하진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8월 준공 | 29일까지 공고기간 거쳐 내달 중 선정심사위 열고 수탁기관 선정

사회적경제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생산품 관료화, 전문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8월 준공 예정이다.

전북도는 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군산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외부 마

감공사를 진행중이며, 준공은 8월이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로, 용도는 교육 연구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조성공사비는 총 280억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군산시비 42억, 특별교부세 10억)이다.

혁신타운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수탁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하여, 입주기업 모집 및 공동장비 구축

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24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중에는 29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7~29일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자격기준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5월 중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혁신타운 입주는 건물 준공 이후인 9월부터 수탁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이 우선 입주하고, 기업입주는 별도의 모집과정을 거쳐 12월경 입주 가능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북도, 정부 방침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속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향후 지속될 듯

전북도는 17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유행규모는 3월 3주를 정

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 중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50%대를 유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관리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대면 외래진료 확대, 비음압

격리 및 의약품 대면수령 허용 등 일상적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반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훨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회복 지난해 12월 18일

잠시 멈춤 이후, 4개월간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했고, 감소세 진입 이후 거리두기 해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증가하며 거리두기

에 대한 국민 수용성도 저하됐다. 특히 이번 감소세는 종전과 달리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신규 변이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감소세가 안정적인 것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방역상황 변화 및 전망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일상회복을 재개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